

Central News

News

담당_김미선

베이커리차이나 2006 초청 받아 중앙회 회장단 중국 공식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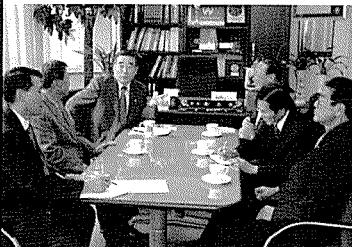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은 중국제과협회 초청으로 베이커리차이나 2006 참관차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김종익 고문, 조병천 수석 부회장, 김옥중·박찬희·주재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조원재 주무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우호 사절단은 지난 5월 16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베이커리차이나 전시회장을 비롯해 제7회 중국제과기술경연대회를 참관했다. 또 지난 5월 19일 열린 중국제과협회 임원단과의 좌담회에서는 양국 제과협회의 우호증진과 기술교류에 대한 논의를 갖고 발전적인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지난해 10월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에 중국제과협회 강일명 부회장을 비롯한 중국 제과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회원 수 따라 이사회 의결권수 배분 논의 제2차 조직특별위원회 열려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4월 27일 대전 유성호텔 세미나실에서 조직특별 위원회(이하 조직특위)를 개최했다. 지난 4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조직특위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절충안으로 제기된,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회·지부의 회원 수에 따라 이사회 의결권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3일 경기도지회 이사회가 경기도 지회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문제에 대한 무효처리 의사표를 밝혀온에 따라 조직특위는 경기도지회에 회원수와 비례해 이사회 의결권수를 배분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와 같은 정관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지회간의 인접 지역 간 통폐합에 대해 서울지역 지회장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살림이 어려운 지회의 경우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과업계 기술발전과 옛 기술 보존 도모 중앙회, 여석회 기술 세미나 후원



(사)대한제과협회가 제과업계 원로모임 ‘여석회’ 주최의 기술발전세미나를 후원한다. 지난 4월 26일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김상엽, 김종익, 이건배, 이선우 고문을 비롯한 여석회 임원진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전통기술을 보존하고 후배 제과인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취지에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여석회 세미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광만 제주도지회장 사회정화시민연대 특별감시단 임명



사회정화시민연대는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추천으로 제주도지회 박광만 지회장(시진)을 특별감시단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특별감시단으로 임명받은 박광만 지회장은 학계·법조계·종교계·직능단체장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사회정화 시민연대와 손잡고 우리 사회의 각종 불·탈법 영업행위의 실태를 계동·지도·감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풍토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6월 연수 앞서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 개최 최우수상 수상자 ENSP 연수 사전 모임

지난 5월 2일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세미나실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최우수상 수상자 ENSP 연수의 사전 모임이 개최됐다. 중앙회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ENSP 연수의 목적과 세부 일정을 설명하고 연수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중앙회 정일석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임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6월 5일부터 13일 까지 프랑스 ENSP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취재_정솔이 기자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단법인화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사)대한제과협회 고문 및 원로 초청 간담회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5월 1일 중앙회관 회의실에서 협회 및 제과업계 원로들을 초청해 2006년도 협회 사업을 보고하고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사단법인화 등 업계주요현안에 대해 원로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로 초청 간담회에는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한 한정희·박병주·이건배 고문을 비롯해 박근성·김종익·김상엽·박정웅·김여숙 기술고문, 이선우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업계원로와 중앙회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희·유현식 부회장 등 회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제과업계 선후배간에 돈독한 교류를 쌓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사단법인화를 둘러싼 의견대립에 대해 제과업계 원로들의 충고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로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탓에 업계가 무척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대한제과협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나가 업계 전체의 발전을 피하는 대승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News

담당_김미선

2006년도 기존영업주위생교육 동시 개최

군포·의왕시지부 제11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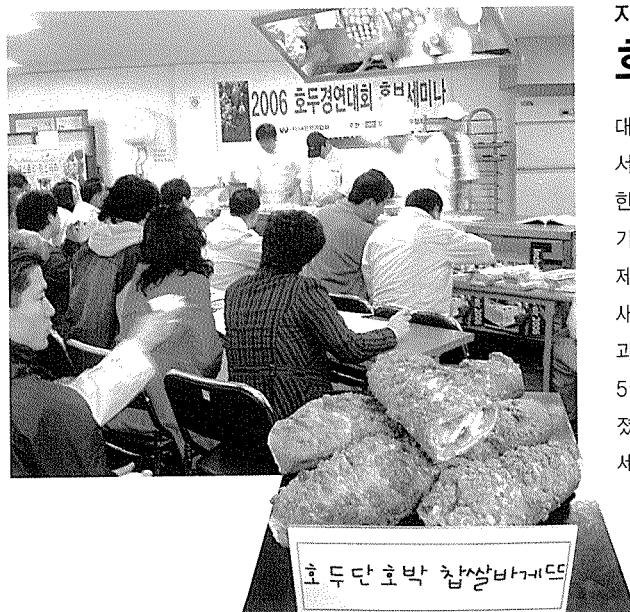
군포·의왕시지부(지부장 이관형)는 지난 5월 3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의왕시 김기태 부시장을 비롯한 지역을 대표하는 내외빈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관형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겨울동안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쁜 꽃을 피우듯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군포·의왕시지부는 이날 정기총회와 더불어 2006년도 기존영업주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선후배 간 끈끈한 친목의 장(場) 이뤄

수원시지부 회원단합대회 개최



수원시지부(지부장 임재순)는 지난 4월 20일 수원시 팔달구 원천유원지 천일농원에서 회원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지부의 선후배가 한데 어울려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뜻에서 개최된 이날 단합대회에는 회원은 물론이고 중앙회 주재근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수원시지부 고문단과 협력업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임재순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수원시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실용적인 빵과 케이크 선보여

호두경연대회 지역순회 홍보세미나 개최

대구·경북지회와 인천광역시지회가 오는 6월 개최될 제12회 전국캘리포니아호두제품경연대회에 앞서 회원업소의 대회참가를 독려하고 대표적인 웰빙식품 ‘호두’를 이용한 빵과 케이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세미나를 열었다.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최원도)는 지난 4월 19일 지회 세미나실에서 김대창 기술지도위원의 실연으로 호두경연대회 홍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44명의 회원업소 제과인이 참여한 가운데 ‘호두호박빵’ ‘호두단호박찹쌀바게트’ ‘오렌지캐러멜너트브레드’ 등 6가지의 새로운 실용제품이 소개됐다.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배인필)는 지난 4월 19일 60여명의 회원업소 제과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대 기술지도위원의 강의로 호두경연대회 인천지역 홍보세미나를 열어 오는 5월 개최되는 지역별 예선의 개최요강에 대해 숙지하고 호두로 만든 빵과 케이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0일에는 ‘찹쌀빵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 인천광역시지회는 앞으로도 기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회원업소 매출신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임 지회장에 길경수 지회장 선출

강서지회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강서지회는 지난 4월 26일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부페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병천 중앙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강서구의회 이창섭 의장, 강서구 환경위생과장, 서울시지회장협의회, 협력업체 대표 등 내외빈과 회원 9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총회에서 강서지회는 지회발전에 공헌한 우수회원들에게 중앙회장상, 공로상, 지회장상, 강서구의회상 등을 표장한데 이어 지난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을 인정받고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열린 지회 임원개선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빵굽터 길경수 대표가 새로운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취재_김진미 기자

남해안 일주로 우호증진 및 정보교류

강남·서초 과우친목회 춘계단합대회



강남·서초지회(지회장 흥종식) 과우친목회는 새봄을 맞아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를 동안 여수, 마이산 등 남해안 일대를 일주하는 2006년도 춘계친목대회를 마련했다.

부부동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강남·서초지역 제과업계가

서로 우호를 다지고 오랜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서초지회 흥종식 지회장은 “지역의 제과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 다함께 발전을 이루자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번 친목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강남·서초지회 과우친목회는 그동안 협회 및 제과업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두 팔 걷고 나서온 10년 징기 단체다.